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박성조 / 설교번역: 강지연
- 1월 안내 및 봉사: 코니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사순절 시작: 2월 18일 재의 수요일

*성서일과 Lectionary (제 3주)

사 49:1-7, 시 40:1-11, 고전 1:1-9, 요 1:29-42

교회세운날 2017.6.11

26-03

1월 18일 (주현절 후 둘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창 35:2b-3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기도		소정진
주일학교 이동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성경봉독	야고보서 1장 1절	인도자
설교	흠어져 사는 자들에게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축도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연결이 주는 든든함

주현절 이후 예전 색깔은 초록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의 예전(liturgy)에서 초록색은 생명과 성장 그리고 지속됨을 상징합니다. 큰 절기, 그러니까 성탄, 사순절, 성령강림절 사이에서 성장하는 삶의 지속됨을 나타내 주는 색깔이 초록인 것이죠. 교회의 주보의 큰 안내 문구들은 예전의 색깔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회편지나 예배순서 등의 글씨가 초록색으로 표기된 것 보이시죠? 주현절부터 사순절 사이의 시간도 초록색이 예전색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현절 이후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인 사순절 전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예전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모든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초라해졌는데 교회 앞 커다란 상록수만은 그 초록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당당함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생명은 이렇게 혹독한 겨울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 나무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은가 봅니다.

몇 주 전 새로 나온 아바타 영화를 봤습니다. 주제는 매우 동양적인데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미장센은 매우 미국적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주제가 동양적이란 말은 모든 자연과 생명들은 연결되었다,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은 존재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만, 동양의 철학은 관계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속한 동양의 사고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떼어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있게 해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통해 내가 규정되기 때문이죠. 판다, 원숭이, 바나나를 놓고 동서양 사람들에게 서로 관련된 것을 묶으라 하면 서양사람들은 판다와 원숭이를 묶고, 동양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다 합니다. 분석적 사고를 통해 개체화하고 범주화하는데 익숙한 서양 사람들은 동물끼리 묶고, 관계와 맥락 전체를 중요시 하는 동양적 사고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묶는다는 것이죠. 영화 아바타에서 '연결, 연대'라는 주제를 읽었습니다. 대자연과 영적인 세계에까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힘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린다는 주제가 아바타 영화에 질게 깔려 있던군요. 머리카락 뒤에 있는 촉수를 통해 다른 생명체들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죠. 연결(connection)이 나를 살린다는 이 주제가 진부하긴 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모든 연결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연결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삶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열면서 야고보는 흠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먼저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주의 창조주이신 빛의 아버지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야고보는 문안 인사를 통해 연결을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서로 잘 지내는지 문안인사라도 나누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면 좋겠네요. 잘들 지내시죠??